

신행 캘린더

11월 22일 (목)

■성상담 교육=자비의 전화는 오후 2시 조계사 불교대학 2층 제4강의실에서 가족보건복지협회 성교육강사인 김정숙 씨를 초청, '성상담 교육'을 실시한다. (02)737-7378

11월 23일 (금)

■한일 다도 교류전=대전 보현문화회관은 오후 7시 회관 법당에서 일본 정국사 주지 타케바나 마사코 스님 등을 초청, 2002년 한·일 월드컵 성공 기원을 위해 '다도 문화 교류전'을 개최한다. (042)624-6555

■나라사랑 캠페인=나눔의 집은 오전 10시 전북대 구정문 앞 카페 VIVO(비보)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나라사랑 캠페인'을 주제로 한 그림전시회 및 일일차집을 개최한다. (031)768-0064

■2002년 대학입시 대책 강연=서울 은평구립도서관은 오후 2시 '2002년 대학입시 전략과 대책'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마련한다. 고교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될 이날 강연은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이병택 평가실장이 맡았다. (02)385-1671

11월 24일 (토)

■김장 나누기 기금 마련 일일차집=경북 경산 백천사회복지관은 오전 10시 경산 오거리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카페 '제로원'에서 자비의 김장 나누기 기금 마련을 위해 일일차집을 실시한다. (053)811-1347

■3333배 기도정진=경기도 양평 법왕정사는 오후 9시부터 25일 오전 7시까지 '3333배 특별기도정진'을 실시한다. 정진에 앞서 '절하는법'에 대해 강의도 마련됐다. (031)771-7745

■홍성훈 선수 팬 사인회=불교기아 도움기구는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동산불교대학 법당에서 두산베어스를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주역인 볼자 홍성훈 선수의 사인회를 개최한다. 팬사인회 수익금은 국내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 (02)732-1206

11월 27일 (화)

■불교여성개발원 1주년 기념행사=불교여성개발원은 오후 5시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창립 1주년 기념행사 및 <대강경속 여성불교>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02)722-2101

■청교련 제주지부 '우리문화자강운동' =대한불교청교련화엄회 제주지부는 오전 10시 한라체육관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4회 우리문화자강운동'을 실시한다. (064)725-0108

경전 공부하며 보살행 실천

신행연장

자비행회 1백여 회원

불법에 대한 큰 믿음과 바른 이해의 기초 위에 경전공부를 하면서도, 보살행을 펼치는 모임이 있다. 놀랍게도 '치마불교'의 주역으로 오해받기 쉬운 50-60대의 보살이 주축이 된 이 단체는 바로 대한불교 자비행회(회장 어수정)다.

14일 오전 10시 대학로 흥사단 강당.

40여명의 자비행회 회원들이 탕화를 뜨고 예불과 천수경 독경을 정성스럽게 올리고 있었다. 30여분의 기도가 끝나자 회원들은 입정(入定)에 들어 <법화경>의 권위자인 혜경스님(무설정사 조실)의 등단을 기다렸다. 이윽고 법사인 혜경스님이 <법화경> '견보탑품'을 해설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가끔 진신사리 천견법회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사리조차도 '제행무상'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어요. 영원한 진신사리는 부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경(經)이니 그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혜경스님의 강의에 마음을 집중하는 보살들은 스님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적으며 어느새 경전삼매에 빠졌다. 이미 <법화경> 강의는 여러번 들었지만, '부처님의 전신(全身)인 법화경을 모든

불상에 봉안하는 이유' 등 실제적인 비유를 곁들인 스님의 설법은 들을 수록 깊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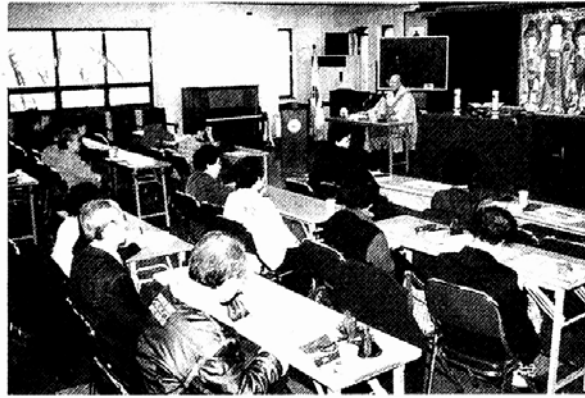
자비행회가 창립된 것은 13년전인 89년 3월. 당시 조계사 총무원회관에서 불교 공부를 하던 '관음회' 회원 중 경전공부와 자비행을 병행하겠다고 20여 보살들이 발심하면 서부터 비롯됐다. 당시 보살들은 성지 순례에 나설 때마다 불사에만 관심을 쏟는 사찰과 기록에만 매달리

매주 수요일 경전삼매

그늘진 이웃엔 가족처럼

는 불자들의 신행행태에 문제를 느끼고 경전공부와 더불어 사는 보살행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어수정 회장은 "타력신행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의식이 없어야 부동(不動)의 발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경전공부를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자비행회는 청량리 불교교회 법당에서 경전공부를 시작했다. 처음엔 3000원의 회비로 성지순례를 병행하며 신심을 다지기도 했다. 도착지까지 버스 안에서는 예불과 천



혜경스님에게 <법화경>을 배우고 있는 자비행회 회원들. 회원들은 소책자 등을 들으며 자비행 실천에도 열심이다.

수경, 염불정진, 찬불가 부르기가 끊임없이 계속된다. 지난 8일에도 적성산 안국사를 참배하고 돌아오면서, 온산에 어우러진 단풍을 보면서 일체가 어우러진 대승의 삶과, 떨어지는 낙엽에서 '무상(無常)'의 진리를 절감했다는 것이 회원들의 이구동성이다.

자비행회는 89년 무설정사의 혜경스님과 인연이 닿으면서 공부의 깊이가 더해졌다. 하나의 경전을 오를 때 한 마음으로 들어다 볼수록, 실천 없는 신행이란 공허하다는 것을 더욱 절감했다. 그래서 평상심으로 이웃과 조화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장학금 전달, 소책자 등을 후원, 양로원 돕기 등 자비행도 더욱 내실을 다지게 되었다.

거사 10명을 포함한 100여명 회원들은 8년전부터는 흥사단 강당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한주도 빠짐없이 '부처님과 하나되기' 위해 경전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혜경스님과 박종 법사가 격주로 강의를 진행해, 그동안 부처님 일대기로부터 <아함경> <원각경> <승만경> <능엄경> <화엄경> <법화경> 등 주요 경전을 배웠다. 처음에는 기초교리도 몰랐던 회원들이 꾸준한 경전공부를 토대로 한 참선, 염불 등의 수행과 보살행 실천으로 회원 모두가 '일당백 포교사'가 된 것이다.

어수정 회장은 "올바른 수행과 실천은 올바른 불교관에서 나오는 것임에도 불자들이 경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수요 강의에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011)776-3545 김재경 기자

생활속의 불교

길은 내 안에 있다

길은 안에 있다. 바깥 대상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 내가 갈구하는 것, 내가 거부하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좇는 길은 내 안에 있다. 구하고 싶거든 안으로 머리를 돌려라. 없애고 싶거든 지금까지 밖으로 향하던 눈길을 지금부터 안으로 돌려라. 운명의 문을 여는 열쇠는 내 안에 있다. 길을 찾는 방법은 내 속에 있다. 밖으로는 아무리 찾아 헤매도 구해지지 않는다. 피할 수도 없다. 밖으로 찾아 헤매면, 저항하면 할수록 거부하면 할수록 운명은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아무리 좇아가고 좋아해도 달라지지는 않는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내가 거부하고 애착하는 것, 그것은 나의 관념이 만들어

낸 상황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다. 내가 해석하고 내가 그려낸 그림일 뿐이지 진짜 풍경이 아니다. 나는 내가 짓고 만든 상황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어 거기서 살다 좋다는 느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진정으로 길을 찾고 싶거든 나 자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아무런 군더더기가 붙어있지 않은 순수한 나로 돌아와야 한다. 내가 그려놓은 상들-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떻게 나를 넘어서 나로서 깨어나야 한다. 내가 '나'라고 그려놓은 그림들은 한결같이 외부세계와 짝지어 놓은 것들일 뿐이다. 그것은 나도 아니요 외부세계도 아니다. 그림이 참모습일 수 없듯이 그것은 나의 진면

목도 아니요 외부세계의 실상도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덧질해 놓은 그림 속에 길이 있다고 찾아 헤맬 것인가.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머릿수 세기와 같다. 자기를 빼놓고 셈을 하니 몇 번을 되풀이해도 답이 나오질 않는다. 길을 찾으려거든 나부터 세라. 나의 생각 나의 행동부터 되바꿔 보아라. 팔자운명이 잘 안풀리는 것은 '나'를 빼놓고 셈을 하기 때문이다. 외부세계만을 셈하고 환경만을 탓하기 때문이다. 길을 가다가 넘어진 사람이 돌뿌리 때문에 넘어졌으니 그 돌뿌리 보고 일으켜 세우고 하겠는가. 넘어진 자, 스스로 땅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생활속 부처님께 음성공양 불교음악은 포교 한 방편

몇해 전 49재가 인연이 되어 우연히 어느 사찰에 간적이 있었습니다. 법당에서 엄숙하고 장엄하게 천도의식이 봉행되고 있었는데, 찬불을 곱게 차려 입은 여러 명의 보살들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그 보살들이 피아노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49재에 무슨 노래를 부르나 싶어서 별 관심을 두지 않았지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법당에 앉은 불자들이 하나 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따라 부르는 불자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지요.



지허스님
안산 천수사 주지

성악지정 관무지덕(慶樂之政 觀舞之德)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 나라의 노래 소리를 들어보면 그 나라의 정사를 알 수 있고, 그 나라의 춤사위를 보면 그 나라의 덕을 짐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불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불교음악, 불교문화를 통해서 불교포교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당에서 흘러나오는 찬불가 소리에 발심하는 불자가 늘어날 수록 불교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불교는 아직도 문화를 통한 포교에는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지역 사찰과 포교당들이 신도와 지역민을 위한 산사음악회와 전시회, 연극공연, 지자체와 연계한 축제 등을 포교의 방편으로 활용하는 예가 늘고 있지만, 전체 불교를 두고 볼때 이러한 행사는 아주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같은 불교 문화를 보다 다양하게 활용하여 보다 많은 대중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마음을 열어 모두 하나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불교를 어렵고,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부의 편견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문화의 원천으로서 불교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도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사찰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또 너무 급히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일부가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자 여러분들도 우리 불교문화를 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작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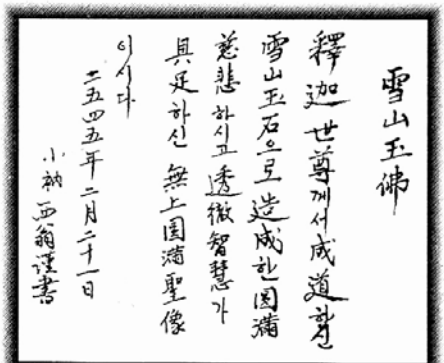
불자단원 100여명 불교합창단 활동 열심

그러나 합창단을 만들기 위해 부딪친 지역의 현실은 예상외로 어려웠습니다. 안산시에는 10만 불자라고는 하지만 서울에서 이주해 온 불자들이 많아서 한 두시간 거리쯤은 멀다 싶고 자신이 다니던 서울의 원찰로 법회를 보기 위해 가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산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을 만들어 재직사찰에 관계없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불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합창단을 구성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사안연합회 스님들과 힘을 합쳐 불교합창단을 꾸렸습니다. 그동안 합창단을 운영해보고 싶어도 여러 이유로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소규모의 사찰까지 동참하는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안산시에는 100여명에 달하는 불교합창단이 활동 중입니다. 얼마 전 안산시민을 위한 불교예술제에 성황리에 치렀으며, 지금도 각 사찰의 중요 행사 때마다 부처님 전에 음성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주진서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부산 051)637-2333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 buddha.co.kr